

통계 속 진실, 현실 속 진실

- 뉴미디어 연구에서의 꼼꼼히 읽기와 원거리 읽기

김익현 아이뉴스 24 글로벌리서치센터장

1. 여는 글- 김훈의 고민, 나의 고민

“일간지 신문기자 생활 20년 동안, 나는 6하원칙으로 구성되는 기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 한 젊은이가 어디서 누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했을 때, 그 팩트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실은 어찌나. 가령 살인의 순간 그 젊은이의 영혼에서 끌어오르던 격렬한 분노를 어떻게 기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진실은 오히려 그 곳에 있지 않을까. 나는 6하를 버렸을 때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강미은, 2001).”

지금은 소설가로 더 유명한 김훈은 원래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다. 엄격한 기사 형식이 지배하던 그 시절. 김훈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가 연필로 꼭꼭 눌러 썼던 수 많은 글들은 6하원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후배 기자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글쓰기’란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김훈의 기자 생활은 ‘전통과의 대결’이란 말로 요약할 수도 있다.¹

서두에 인용한 글은 김훈이 기자 생활을 그만두면서 토로한 내용이다. 꽤 오래 전에 쓴 김훈의 저 글은 개성 없는 6하원칙 글쓰기에 매몰된 기자들을 겨냥한 돌직구다. 전신시대의 산물인 역피라미드형 기사쓰기를 20세기말까지 고수하고 있는 경직된 저널리즘 관행을 꼬집고 있다. 김훈의 글에서 “저널리스트들은 텍스트(text) 너머에 있는 콘텍스트(context)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끌어낸다면, 도를 넘은 확대해석일까?

김훈의 저 메시지는 비단 언론계에만 경종을 울리는 건 아니다. 언론학이나 뉴미디어 연구 분야에도 중요한 함의를 던져준다. 이를테면 ‘6하원칙으로 구성되는 기사’란 말을 ‘실증적 방법론과 통계가 지배하는 논문’이란 말로 살짝 바꿔 읽어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통계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론학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텍스트(연구 대상) 읽기에서 시작해 텍스트(연구결과) 쓰기로 끝난다.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읽기에서 시작해서 쓰기로 끝나는 것이 연구 논문이다. 이런 진술이 연구 작업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양적

1. 남재일(2013)은 김훈이란 스타 기자가 탄생할 수 있던 이면에는 당시 문화부가 신문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면으로 인식됐던 점도 강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편집국장들이 문화부 기사에 대해 간섭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모든 기자들이 김훈의 문체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데스크 대부분은 김훈 식 글쓰기에 대해 ‘기사 문장이 아니냐’는 이유로 거부 반응을 먼저 보였다고 한다.

연구에선 데이터 수집, 코딩, 분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 역시 결국은 ‘텍스트 읽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읽기라고 했을 때 직접 텍스트를 읽고 탐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이 읽은 것을 인용하거나, 혹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취합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텍스트 읽기’다. 당연한 얘기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통계 분석한 뒤 그 속에서 의미를 캐내는 행위 역시 읽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학계에선 그 부분이 통상적인 읽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 상당수가 통계를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증적 연구는 초기 언론허계의 기초를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양승목(2009)은 1970년대 이후 한국 언론허학이 경험주의 연구를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면서 신생 학문의 본격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국 언론허학의 역사는 ‘엄밀한 사회과학 방법론에 입각한 실증적 학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던 과정이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허학의 현재의 ‘성공’은 “지난 50년 동안 한국 언론허학이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 여타 사회과학과의 경쟁 속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도화에 몰두했던 결과”(1039쪽)라는 것이다(박진우, 2013에서 재인용).

게다가 실증적 방법론은 장점도 적지 않다. 논문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실증적 방법론만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도 드물다. 통계를 활용한 양적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표집 작업만 제대로 할 경우 어떤 연구문제든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구결과에 대해선 쉽게 반박하기 힘들다. ‘객관적 검증’을 최고 가치로 삼는 사회과학에선 가장 안전한 연구방법론인 셈이다.

이런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 학계의 실증적 방법론 우대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여 문득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본다. 통계를 바탕으로 한 양적 방법론이 학계의 주도적인 연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를테면 주요 학술지들이 실험적인 연구 방법론보다는 ‘전통적인 형식에 충실한’ 양적 방법론을 좀 더 흔쾌히 받아들이는 때문은 아닐까? 양적인 잣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실적 평가 방식 때문에 연구자들 역시 다른 방법론, 이를테면 참여관찰이나 자기 민속지학 같은 좀 더 실험적인 방법론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양적 방법론을 선호하는 건 아닐까? 교수 업적 평가 때 질적인 평가보다는 논문 편수 위주의 양적인 기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험 정신 강한 소장 학자들조차 정형화된 논문을 쓰는 데 정력을 쏟고 있는 건 아닐까?² 그러다 보니

2. 최근 언론허계의 한 원로학자가 신문 칼럼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지적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본다.

“논문 개수를 따지는 평가기준을 질적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 기준은 당연히 자체 지식 생산 기반, 표준을 만드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논문인가가 관건이 돼야 한다. ‘의미 있는’ 논문은 해당 분야에서 인식의 전환, 방법의 전환,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킨다. 5년에서 10년 걸려 한 주제에 천착하는 저술과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점은 학계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각 대학들이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 연연할 게 아니라 지식 생산의 자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강명구, 2013).”

사회과학의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절대로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박동숙, 2008)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건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뉴미디어 분야 논문 읽기 경험 때문이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수시로 바뀌는 방대한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낸 뒤 통계분석한 결과물에 과연 과학적/객관적 검증이란 훈장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일까, 란 의문. 이걸 마치 거대한 사회 흐름(context) 속에서 일부 사실(text)만 자의적으로 떼어낸 뒤 ‘형식만’ 객관적인 글쓰기 틀에 담아낸 기사가 객관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모양새는 아닐까, 란 의문까지 들었다. 그러던 차에 “논문 개수를 따지는 평가기준을 질적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강명구, 2013)”는 원로 학자의 칼럼을 읽고 용기를 내게 됐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담아내기 위해 ‘텍스트 읽기’란 프리즘을 동원하기로 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읽기는 단순히 단어(words)를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어떤 텍스트를 이해한 뒤, 이론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의 글 읽기(Hayles, 2012, p. 26)를 의미한다. 조금은 추상적인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영문학계에서 오래 전 화두가 됐던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와 ‘원거리 읽기(distant reading)’ 논쟁을 잠시 빌어올 생각이다. 비교문학 연구자인 프랑코 모레티(Frank Moretti)가 제시한 ‘원거리 읽기론’은 소수의 정전(canon)을 선택한 뒤 집중적으로 읽고 분석하는 것을 문학 연구의 전범으로 삼았던 영문학계의 연구 관행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모레티 자신은 ‘논문 제출 막판에 덧붙여 넣은 용어 때문에 불거진 논쟁’³이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원거리 읽기를 둘러싼 공방 속엔 ‘텍스트 읽기’에 대한 영문학계의 고민이 깊숙이 배어 있다. 조금 시일이 지난 논쟁이긴 하지만, ‘원거리 읽기’를 둘러싼 영문학자들의 공방이 지금 이 시대 우리 뉴미디어 연구 지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글의 상당 부분은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서술할 계획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자기 민속지학’이라 명명한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을 쓰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 종일 온라인 저널리즘 관련 고민을 하고 있는 현업 종사자 겸 연구자의 주관적 서술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 수백명의 생각을 통계분석한 글에 비해 과학적이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고 ‘생때’를 한 번 써보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실험적이고 주관적인 글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겠다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전통적인 학문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논문’이라고 부르기에 다소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가끔씩 이런 이단적인 접근이 하나쯤 섞이는 것도 학계 발전을 위해 과히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란 말로 핑계를 삼아보려고 한다.

2. 모레티가 제안한 새로운 읽기-‘원거리 읽기’

오랜 기간 영문학계에선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를 모범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숭배해 왔다. 엄선된 정전(canon)을 집중적으로 읽고 꼼꼼하게

3. 모레티는 2013년 출간한 *Distant Reading*에 원거리 읽기 논쟁의 시발이 된 ‘세계문학에 관한 추측들’이란 논문을 수록하면서 앞 부분에서 ‘원거리 읽기’를 둘러싼 이후 논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모레티는 처음엔 serial reading이란 말을 사용하려다가 논문을 제출하기 직전에 distant reading이란 말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

분석하는 것이 ‘꼼꼼히 읽기’의 기본 방법론이다. 당연히 꼼꼼히 읽기에선 선행 연구와 문학 관련 이론이 중요한 분석 도구로 쓰인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읽기다.

신비평주의의 근간이 된 이 방법론의 바탕에는 ‘문학사의 전범이 될만한 정전은 한정돼 있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문화권을 고려하기 보다는 영미문화권 중심의 작품들을 주로 연구하던 관행에서 출발했던 얘기다. 이를테면 대학 강단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작품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세계문학사에 대한 그림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출신 비교문학자인 프랑코 모레티(F. Moretti)는 지난 2000년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에 발표한 ‘세계문학에 관한 추측들(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⁴이란 논문에서 ‘꼼꼼히 읽기’ 중심의 연구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한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전을 꼼꼼히 읽는 방법을 통해서 전체 문학 지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한 학자가 평생을 바쳐도 방대한 연구 대상의 조각만 겨우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것만으론 사실상 세계 문학이란 거대한 지형도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읽지 않은 위대한 작품(great unread)’이 즐비한 상황인 만큼, 단순히 더 많이 읽는 것만으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모레티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더 많이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악마와 계약하는 심정으로 읽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Moretti, 2013, p. 49).

이런 비판과 함께 모레티가 ‘꼼꼼히 읽기’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 ‘원거리 읽기(distant reading)’다. 모레티는 “더 많이 읽는 게 해답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읽지 않은 것 중에 위대한 작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고 주장한다(Moretti, 2013, p. 45). 어차피 연구자 한 명이 모든 작품을 다 섭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읽어놓은 것들을 빌려오자는 것이다.⁵

모레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영문학자인 캐서린 헤일즈(Hayles, 2012, p. 28)는 텍스트와 직접 대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읽은 것(readings of others)들을 취한 뒤 종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레티 주장의 이면에는 “이미 우리는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그 텍스트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읽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김영민, 2012)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의 기본 개념은 도발적이다. 개별 텍스트를 읽는 대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자는 방법론이다(Schultz, 2010). 문학이라는 가장 주관적인 연구 대상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라는 실증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물론 원거리 읽기가 현대에 와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이를테면 텍스트를 대충 띄어넘으면서 본다가거나, 참고 문헌을 훑어보거나 특정 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4. 모레티는 2013년 *Distant Reading* 이란 평론집을 출간하면서 이 논문도 함께 수록했다. 이 글에선 모레티가 *Distant Reading* 에 수록한 글을 주로 참고했다.

5. 모레티는 지역, 민족문학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다양한 자료를 ‘distant reading’으로 거론 결과 근대 소설의 발생이 흔히 생각하듯 디포우(Daniel Defoe)의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해 폴란드, 터키, 필리핀 등 비서구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유희석, 2005).

언급했는지를 살펴보는 독서 방식도 일종의 원거리 읽기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Mueller, 2007).

‘꼼꼼히 읽기’ 연구 방법론의 한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연구 대상이 확대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Christie, 2010). 문학 텍스트에 숨겨져 있는 상징적 의미를 풀어내는 심리 분석 방법론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면서 ‘꼼꼼히 읽기’의 한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즉, 개별 텍스트 분석이 주류를 이루던 문학 연구의 범위가 문화, 역사 사회학 쪽으로 확대되면서 ‘텍스트 분석’에 치중하는 꼼꼼히 읽기의 효용성이 급속하게 떨어졌다. 모레티가 주로 네트워크 이론과 다윈주의 관점에서 문학의 진화에 대해 연구했던 점 역시 ‘원거리 읽기’에 관심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가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방법론이 바탕을 이루는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뮐러(Mueller, 2007)는 이런 주장을 토대로 원거리 읽기의 진정한 가치는 고색창연한 인문학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인문학 연구에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 기법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꼼꼼히 읽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도 있다. 꼼꼼히 읽기로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Jokers, 2013; Kestemont, 2013 에서 재인용). 원거리 읽기 덕분에 이전에는 도저히 연결할 수 없었던 것들 간의 관계까지도 분석해낼 수 있게 됐다(Kestemont, 2013)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물론 모레티의 ‘세계문학에 관한 추측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주된 비판의 칼날은 원거리 읽기란 방법론을 끌어낸 모레티의 세계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 바탕을 두고 세계문학을 중심부(서구)와 주변부로 나눔으로써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가치관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중요한 문학 연구에서 계량적 방법론을 전면내 내세움으로써 가치 평가라는 또 다른 연구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원거리 읽기’란 개념을 ‘읽기’로 볼 수 있는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도 적지 않았다. 모레티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원거리 읽기를 통해 유럽에서 특정 장르가 확산되는 경로나 소설 제목 길이, 제인 오스틴 소설 속 결혼 유형 같은 의미 있는 분석을 해낸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원거리 읽기’ 자체는 통상적인 읽기에 포함시키기 힘들다는 비판이었다(Culler, 2010; Mueller, 2007).

하지만 대체로 이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편이다. ‘원거리 읽기’를 주장했던 모레티 자신조차 연구 작업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땐 사람들의 손을 빌면서, ‘완벽한 원거리 읽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Schulz, 2011). 궁극적 지식을 위해서라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와의 계약도 불사하겠다는 모레티 본인조차 추상적 이론모델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디테일 및 이론과 보측관계인 비평의 중요성을 인정했다(유희석, 2005)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지적이 ‘원거리 읽기’를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다.

법칙 정립을 추구하는 추상도가 높은 설명모델일수록 그 실질적인 유효성은 궁극적으로 개별 작품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실감’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인문과학의 특수성이요 난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문학 연구에서의 추상적 모델이라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작품의 창조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따르는 해석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을 뜻한다. 문학에서 모든 이론적 가정의 유효성은 결국 실제 지식을 아우르는 ‘읽기’에서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너무 ‘close’하거나 ‘distant’ 해서는 지식인의 자기 소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읽기 말이다(유희석, 2005).

‘지나치게 close 하지도, distant 하지도 않은 읽기’가 정답이라는 유희석의 지적은 어찌 보면 다소 맥 빠지는 결론처럼 보이기도 한다.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지극히 원론적인 결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는 인문학 연구에 실증적인 방법론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한계가 많긴 하지만 모레티도 자신이 설립한 스탠퍼드 리터러리 랩(Stanford Literary Lab)을 통해 ‘원거리 읽기’를 토대로 한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⁶ 물론 모레티가 주장한 원거리 읽기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읽은 것을 취합하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모레티 자신도 ‘원거리(distant)’란 단어 자체에 “지식과의 거리”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거리 읽기에는 헤일즈(Hayles, 2012)가 주장한 기계 읽기(machine reading)란 개념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⁷

모레티가 불을 지핀 ‘원거리 읽기’를 둘러싼 공방은 사회과학 분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위해선 먼저 모레티가 ‘원거리 읽기’를 들고 나오게 된 이유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론의 출발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구 대상의 규모였다. 한 사람 힘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정전들’을 도저히 다 소화할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니 연구 대상인 텍스트를 전부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리고 ‘악마와 계약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텍스트 읽기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자는 게 ‘원거리 읽기론’의 골자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세계문학(World literature)이란 거대한 괴물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모레티의 문제의식이자 출발점이었다.

무슨 얘기인가? ‘원거리 읽기’가 제대로 성립하려면 여러 연구자들의 ‘꼼꼼히 읽기’가 축적돼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는 무수히 많은 ‘꼼꼼히 읽기’를 씨줄처럼 연결한 뒤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들의 ‘꼼꼼히 읽기’가 없을 경우엔 ‘원거리 읽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론 영문학 연구에선 그 부분을 크게

6. 모레티는 스탠퍼드 리터러리 랩(Stanford Literary Lab)을 중심으로 원거리 읽기 방법과 함께 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해 문학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의 공식에 따르면, 주인공은 다른 정점들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인물이다(Schulz, 2011).

7. 사실 원거리 읽기란 용어 자체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이 용어를 처음 도입한 모레티조차 원거리 읽기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적 탐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거리 읽기를 비판하는 학자들 역시 어떨 때는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읽는 것’이란 관점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직접 읽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것’이란 관점을 견지하는 것 같다. 이 글에서 원거리 읽기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포괄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꼼꼼히 읽기’에 몰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읽은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3. 원거리 읽기가 지배하는 뉴미디어 연구

자, 이제 눈을 우리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우리 언론학, 그 중에서도 뉴미디어, 특히 그 중에서도 인터넷-하이퍼텍스트 관련 연구 분야는 ‘원거리 읽기’가 지배하고 있다. 텍스트 속으로 깊이 들어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작업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적인 읽기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모레티가 주장한 ‘원거리 읽기’는 사회과학 쪽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활용해 온 연구 방법론이었던 셈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메타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양적인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신태범과 권상희(2013)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학보를 비롯한 6대 언론관련 학술지에 온라인 저널리즘 관련 논문 163편을 분석한 결과 설문(68편)과 내용분석(48편), 실험연구(21편) 등 양적 연구가 전체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들의 관점도 가치 중립적인 경우가 많다. 우형진과 박지연(2011)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역시 6대 학술지 논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며 중립적인 관점을 보인 논문이 전체 인터넷 관련 논문 중 66.6%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 관점(22.9%)과 부정적 관점(10.4%)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우형진 등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인터넷 연구 결과를 ‘가치 유보 또는 중립적’ 태도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형진 등은 “과학적 연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나 인터넷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분명한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뛰어넘어 연구자 간에 건전한 논쟁과 토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학문적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진 등(2011)은 또 인터넷 관련 연구 조사 방법은 양적 분석(233편, 67.5%)이 질적 분석(83편, 24.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양적분석에선 주로 설문조사(150편, 43.5%)이 많이 사용됐으며, 질적 분석에서는 문헌/자료 조사(49편, 14.2%)가 주류를 이뤘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설문조사와 실험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단일집단이 대부분 연구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이었다고 지적했다.

SNS 쪽으로 좀 더 좁혀보면 어떨까? 김해원-박동숙(2013)은 국내 SNS 사용자 경험 연구는 주로 이용과 충족 접근과 혁신저항이론의 틀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첫째, 사용자들이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동기에 의해서만 현상이 설명된다는 점, 둘째, 사용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나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도, 사용자들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그 내적인 역동을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점. 셋째, 사용자 경험이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통시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실제 사용자들에게 SNS 가입, 탈퇴, 중단, 유지의 문제는 보다 복합적인 고민

속에서 선택되고 결정되는 문제임에도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 주목했다는 점이다(김해원-박동숙, 2013).”

요약해보자. 현재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연구에선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자가 분명한 색깔을 갖고 비판적으로 접근한 논문보다는, 그냥 중립적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설문이나 실험 연구는 대부분 가장 ‘편의적인 표본’인 대학생 집단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선 연구자들이 뒤로 빠진 채 그냥 관찰자 역할로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 왜 이런 한계를 보이는 걸까? 물론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들이 ‘꼼꼼히 읽기’가 빠진 ‘원거리 읽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관적으로 과감한 진단을 하기 보다는, 연구 대상과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객관적인 형식’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적 엄밀성에 매몰되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처럼 시도하지 못해온 언론학 분야에서 ‘자유분방한’ 방법론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임영호, 2013; 김세은, 2013에서 재인용).⁸

논문이 백서나 보고서와 다른 건 연구자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다. 그런 작업의 학술적 가치를 절대 폄하해선 안 된다. 하지만 중립적 관점에서 현상을 수집하고 설명하는 것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그런 학풍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인터넷과 SNS 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선 좀 더 비판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의 메타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학계의 뉴미디어 연구는 상당 부분 현상 설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연구 동향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연구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연구 대상의 성격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자.

뉴미디어 연구자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연구 대상은 모레티가 ‘절망 했던’ 세계문학의 정전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게다가 실시간으로 관련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온다. 상호작용성 관련 연구를 하려고 댓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이에 또 다른 댓글들이 이전 데이터를 뒤덮어 버린다. 그나마 댓글은 낫다. SNS는 아예 표본 수집조차 불가능하다. 무한 확장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SNS 연구가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음소나 형태소 분석 면에서 아직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⁸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김영민의 다음과 같은 비판을 깊이 새길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과학성을 학문성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았던 실증주의적 태도는, 물리학의 영역에서조차도 지나치게 경직되고 협애한 관점으로 비판받은 지 오래다. 그러나 이 땅의 불행은, 서구에서 쫓겨난 후 올 데 갈 데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경박하고 직절한 과학적 실증주의가 여전히 우리 학자들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망령으로 군림한다는 사실에 있다(김영민, 1996, 31 쪽).”

<<글쓰기 공간>>을 통해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볼터(Bolter, 2001/ 2010)는 아예 “하이퍼텍스트를 완전히 품에 안겠다는 희망을 품는 것은 부질 없는 짓이다”고 선언했다. 볼터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하이퍼텍스트는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총체적인 모습을 담으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란 것은 메시지가 추가되고 삭제되면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네트워크에 글을 쓰게 되면 전체 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주고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형학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Bolter, 2001/2010, 59 쪽).

그런가 하면 <<하이퍼텍스트 3.0>>으로 유명한 조지 란도(G. Landow)는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하이퍼텍스트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는 ‘리좀(Rhizome)’ 같은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란도(Landow, 2006/ 2009, 92 쪽)는 또 “하이퍼미디어 읽기와 쓰기의 원칙 중 하나는 아무 곳에서나 시작해 서로 연결할 수 있다. 혹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장처럼 “각 고원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읽어도 상관 없으며, 이들은 다른 고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현재 뉴미디어 연구자들 앞에 놓여 있는 연구 대상이다. 끊임 없이 자기 분열하고 확장하는 괴물 같은 존재. 다가가서 잡으려고 하면 어느 새 저만큼 멀리 도망가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란 괴물의 본 모습이다.

그 뿐 아니다. 인터넷 공간에선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의 역할이 뒤엎킨다. 사이버텍스트(cybertext)로 구성된 인터넷 공간의 성격에 에르고딕(Ergodic)으로 규정한 에스펜 울셋은 “사이버텍스트는 독자가 바로 경기 선수이자 도박사가 되는 공간이다. 사이버텍스트는 그 자체가 바로 게임 세계이면서 동시에 세계 게임이다”(Aarseth, 1997/2007, 22 쪽)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이버텍스트가 기존 텍스트와 어떻게 다른 지를 축구 경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한다.

축구 경기를 보는 관중은 경기를 분석하고 추측하고 해설도 하면서 심지어 소리까지 지르지만 경기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다. (중간 생략) 관객은 “내가 이렇게 공을 차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볼까”라는 영향력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 관객의 즐거움은 보는 것의 즐거움이다. 이는 안전하기는 하나 영향력은 없는 즐거움이다. 사이버텍스트 독자는 반대로 안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사이버텍스트의 독자는 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Aarseth, 1997/2007, 21 쪽)”

4. 꼼꼼히 읽기가 빠진 원거리 읽기의 한계

- 자기 민속지학적 고백⁹

⁹. 주형일(2007)은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란 흥미로운 논문에서 자기 민속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기민속지학은 ‘나’가 분석주체이며 분석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분리된 어떤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민속지학과 차이를 드러낸다. (중간 생략) 자기민속지학은

인터넷 연구에서 ‘꼼꼼히 읽기’가 빠진 ‘원거리 읽기’가 왜 문제가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 자신의 논문 작성 경험을 한 번 떠올려보자. 2007년 처음 논문 준비를 하면서 나는 당시 이슈가 됐던 ‘블로그 저널리즘’을 한번 탐구해보기로 했다. 시민 저널리즘의 좀 더 진화된 형태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다음이 운영하던 블로거 뉴스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미디어다음은 2006년 무렵부터 블로거 뉴스 사이트 전면에 배치하면서 매주 특종상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블로거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블로거 뉴스 편집진들의 선택을 받을 경우 미디어다음 메인 화면에 아웃링크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트래픽 폭탄’을 선사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뉴스는 대표적인 블로그 저널리즘 플랫폼으로 큰 각광을 받았다.

이론적 배경이나 의미를 정리하는 작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 직전에 <<블로그 파워>>나 <<웹 2.0 시대의 온라인 저널리즘>> 같은 저술 작업을 통해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꾸준히 탐구해 왔기 때문이다. 2000년 무렵부터 인터넷 언론 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과 연결된 고민을 꾸준히 해 온 점 역시 이론적 토대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블로그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저널리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나름대로 많이 쌓여 있었다. 게다가 블로거 뉴스 편집진들과도 비교적 잘 아는 편이라 심층 인터뷰를 비롯한 다른 연구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점 역시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실증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면서 이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단 연구 대상이 너무나 많았다.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다. 연구 범위를 가능한 최소화하면 됐기 때문이다. 정작 그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평소 유심히 관찰했던 모습과 내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활용해 반말/존대말 메시지, 이슈 트랙백 활용 분석 등을 토대로 블로거 저널리즘 공간의 상호작용성 정도를 분석했다(김익현, 2008).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공간이 꽤 시끄럽고 또 험한 말도 오가는 공간,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했던 난장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가 수시로 드나들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막상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반말이 오가기 보다는 정연한 존댓말을 주고 받는 아주 점잖은 공간이었던 것이다. 반론과 재반론이 오가면서 격하게 논쟁하는 모습보다는 질서정연한 세미나 장 같은 분위기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였다. 늘 시끄럽던 맥주집 같던 공간이 어느 새 질서정연한 세미나장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조금 당혹스러웠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서술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난 이런 부분을 연구의 한계에 명기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연구자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사회적 측면을 발견하고 문화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자기민속지학이다.”

수시로 변화 발전되는 블로그 공간 속으로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공론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의 정제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중간 생략) 그러다 보니 댓글이나 트랙백 같은 역동적인 대화 기제를 활용한 토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댓글 공간 분석 결과에 존댓말 메시지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것이나, 상호작용 메시지 비율이 생각보다 낮게 집계된 것은 블로그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그르지 않을 것이다(김익현, 2008).

당시 ‘정리된 콘텐츠’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건 연구자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이유였다. 당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학위 논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탐구할 여유가 없었다. 방대한 연구 대상 속으로 뛰어들어 계속 탐구하고 주시할 여유가 없었던 때문이다. 형식적인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위 논문 쓰는 사람의 최우선 과제는 통과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장 보편타당한 방법론을 쓰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연구 설계를 할 때 질적 분석 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긴 했다. 최선의 연구 설계는 복수의 연구 방법을 사용해 서로 다른 장점을 이용하는 것(Babbie, 2001/2002, 157 쪽)이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 때문이다. 그래서 난 미디어다음 블로거 뉴스 편집자 두 명과 인터뷰했다. 그런 다음 그들로부터 대표적인 블로거 기자 10 명을 소개받은 뒤 직접 접촉해서 인터뷰를 했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제된 텍스트 뒤에 숨겨져 있는 역동적인 이면을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 설계에도 불구하고 평소 꼼꼼하게 살펴왔던 ‘블로그 공간의 그림’과 실제로 내가 그려낸 그림 사이의 격차가 꽤 크게 느껴졌다. 쉴 새 없이 흘러 지나가는 강물을 일정한 시간에 한 바가지 씹 수집한 뒤 성분 분석을 한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언젠가 다시 연구할 기회가 있다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란 객관적 외피를 벗어던지고 연구 대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주관적인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한 적 있다.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삶은 늘 생각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한 때문이다.

복잡한 현실을 실증주의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접하게 되는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남궁 협, 2013; 김영민, 1996; 주형일, 2011) 특히 남궁 협(2013)은 최근 커뮤니케이션학이 위기에 빠진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 중 하나로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경도되어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조금 길긴 하지만 그 부분을 직접 인용해보자.

과학주의, 실증주의 혹은 실용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입증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것으로만 허용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의 질적 다양성을 배제한 채 동일한 척도로 추출한 양적 자료를 교환가치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개념과 대상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이것은 결국 사실성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존재 대상에 포박되어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유 지평의 확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만다(남궁 협, 2013).

논문 위주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김영민(1996, 34 쪽)은 아예 삶과 세상의 제 모습에 충실하고자 하는 <잡스러운 글쓰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서만 설익고 왜곡된 단순화의 학문 정신을 넘어서 삶과 세상의 원형적 모습으로서의 복잡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5. 원거리 읽기와 꼼꼼히 읽기의 유기적 결합

“완전하게 이해할 순 없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순 있다.”

-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영문학계는 요즘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텍스트를 좀 더 입체적으로 담아낼 방법론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레티가 2000 년 주장한 ‘원거리 읽기’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느낌이다. 결국 디지털 인문학 역시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컴퓨터 시대의 읽기와 쓰기가 무엇이냐는 문제의식과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Berry, 2012).

지나친 단순화란 비판을 무릅쓰고 요약하자면, 영문학계는 빅데이터와 디지털이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꼼꼼히 읽기’ 일변도 방법론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원거리 읽기’를 둘러싼 논쟁이 갖는 이론적 가치는 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사회과학계는 전통적으로 ‘원거리 읽기’가 지배하는 학문분야였다. 주관적 감수성이 중요한 문학계가 아무래도 ‘꼼꼼히 읽기’를 통해 작품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쪽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객관적 검증을 앞세우는 사회과학계에선 가급적이면 ‘보편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쪽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거리 읽기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방법론은 각종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꼼꼼히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그 동안 객관적 방법론이라고 생각했던 방식, 이를테면 표집 절차를 거쳐 표본을 추출한 뒤 실증적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과연 복잡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현실의 복잡다단한 면을 제대로 담아내는 데 지금 같은 ‘원거리 읽기’가 효율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연구 대상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통계분석한 결과가 혹시 현실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을까?¹⁰ ‘꼼꼼히 읽기’를 도외시한 채 ‘원거리 읽기’에만 눈을 돌림에 따라 형식은 객관적이지만 내용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해원-박동숙(2013)이 문화주의 연구의

10. 최근 나는 ‘19 번째 남자(Bull Durham)’란 야구 영화를 보다가 흥미로운 대사를 접했다. 야구에서 특급 타자의 기준으로 통하는 3 할과 낙제 수준에 해당하는 2 할 5 푼이 따지고 보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어찌보면 통계의 허상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대사였다. 학술적이지 못한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인터넷 세상처럼 데이터 모집단 자체가 수시로 변화하는 텍스트와 대결할 땐 한번쯤 새길만한 대사라고 생각한다.

“2 할 5 푼과 3 할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냐? 고작 안타 25 개야. 타석에 500 번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안타 25 개를 더 치면 타율이 5 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 시즌이 6 개월이지. 그럼 대략 25 주 정도 돼. 알겠지? 일주일에 안타 한 개만 더 치면 된다고. 1 주일에 빗맞은 안타(dying quail) 하나만 더 치면 양키 스타디움에 설 수 있단 의미야.”

한계로 지적한 것처럼 “현장에서 얻은 사용자들의 경험의 수준과 연구자가 논의하는 담론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보이는” 경우가 지나치게 잦은 건 아닐까?

박진우(2013)는 언론학이 경험적 자료의 축적을 통한 독자적 이론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은 기존의 이론을 분석을 위한 배경 정도로 취급하면서 사실상 이론 논의 자체를 내다버린 것일 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유 능력 쇠퇴’에 대응하는 데 인문학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언론학에 필요한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어쩌면 인문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적 속성, 곧 언어와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 끊임 없이 이론과 텍스트와 대결하는 자세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박진우, 2013).

나는 언론학에 필요한 인문학적 상상력은 끊임 없이 이론과 텍스트와 대결하는 자세 속에서 생겨난다는 박진우의 주장에 깊이 동감한다. 그리고 이론, 텍스트와 끊임 없이 대결하려면 방법론의 근간이 되는 읽기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난 최소한 인터넷, 뉴미디어 연구자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대상과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텍스트를 읽어왔던 그 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텍스트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¹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 난 영문학계가 꼼꼼히 읽기에서 원거리 읽기로 시야를 확대한 반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동안 ‘원거리 읽기’가 지배했던 인터넷 연구 분야에 좀 더 과감하고 주관적인 ‘꼼꼼히 읽기’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아니, 소수이긴 하지만 이미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개별 연구자 차원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객관적 방법론 자체의 한계: 앞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인터넷 연구에선 객관적 표집과 분석이 굉장히 힘들다. 특히 SNS 현상을 연구할 경우엔 더 심하다. 텍스트를 수집하는 동안에도 모집단 자체가 변화 발전해나가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매 시간 흐르는 강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씩 퍼낸 뒤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연구 대상의 제대로 된 모습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전문 연구자의 비판적 식견에 대한 믿음: 현실이 이렇다면 연구자들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그 분야를 계속 탐구하고, 또 고민하는

11. 혹시 있을 지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마디. 내가 인터넷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이 쪽 분야가 특히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단지 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선 비교적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련 글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언론학계 전체가 지금 같은 형식적인 글쓰기 틀에서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 마디 더 첨언하자면, 이진 비단 학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형식은 객관적이되 내용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글들은 사실 언론계 쪽에서 훨씬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의 주관적 서술에 대해 우리 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학자들이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을 굳이 객관적인 형식이란 외피를 입혀서 불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전문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목소리들이 결국은 객관적인 전체 그림을 그려내는 토대가 되는 것 아닐까?¹²

셋째, 좀 더 효과적인 원거리 읽기를 위한 기반 구축: 하이퍼텍스트는 고정된 단일한 텍스트라는 개념을 파괴한다(Landow, 20062009, 152 쪽). 다른 텍스트와 끊임 없이 연결되면서 텍스트 자체가 확대된다. 링크를 비롯한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 다른 관점의 텍스트를 곧바로 연결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텍스트를 여러 개 연결해서 객관적인 총체적 모습을 그려낼 수도 있다. 나는 앞으로 학술 연구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과 달리 이제 같은 맥락의 텍스트들을 링크를 비롯한 다양한 연결 기제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연구의 한계를 다른 텍스트를 통해 보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난 연구자들이 지금보다는 연구 대상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전체 학술 발전을 위해선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선 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미국 몬태나 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흐르는 강물처럼>은 특히 플라이 낚시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영화다. 앞에 인용한 문구는 주인공인 노먼과 폴 두 형제의 아버지인 매클레인 목사는 마지막 설교에서 남긴 말이다.

나는 방대한 인터넷 세상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이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인터넷-하이퍼텍스트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간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완벽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이제 텍스트 속으로 뛰어들어가 좀 더 친근한 학술적 교감을 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에 대한 이런 애정에 바탕을 둔 ‘꼼꼼히 읽기’가 인터넷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런 애정에 바탕을 둔 서술이라면 주형일이 권고하는 아래와 같은 경지와 그다지 멀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논문에서 주관적 이해는 주관적인 것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러려면 연구자가 논문에 명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연구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1 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면 논문에 연구자의 생각, 감정, 판단 등을 드러내기 쉬워진다.

12. 조금 도발적이긴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나는 인터넷 저널리즘 현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독자 반응부터 수익 모델, 장기 성장 전망 같은 것들을 끊임 없이 고민한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논문으로 쓸 경우 대부분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반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통계 분석할 경우엔 연구문제와 분석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었을 경우엔 훌륭한 실증적 논문으로 인정을 받는다. 과연 후자가 전자보다 현실을 더 잘 해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평소 인터넷 저널리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불특정 다수 대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가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 24 시간 고민하는 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서술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일까? 난 우리 학계가 이런 도발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논문에 자신의 위치와 편견 등을 드러내고 논문을 통해 제시하는 주관적 이해가 객관적 진리가 아님을 분명히 할 수 있다(주형일, 2011).

논문 쓰기란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란 명목으로 연구자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논문형식의 문체는 연구를 관통해 흐르는 연구자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데 어떤 형식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방식으로 제기된다. 연구자의 세계관은 방법론을 통해 가시화된다(주형일, 2011).

6. 나가면서

- 디지털 민속지학과 꼼꼼히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

지금까지 영문학계에서 주로 논의된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를 중심으로 한국 인터넷 연구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왔다. 또 현업 종사자로서 블로그 저널리즘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썼던 경험을 ‘자기민속지학적’으로 고백하면서 인터넷 연구에서 통계 방법론이 갖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최소한 인터넷 관련 연구에서는 ‘원거리 읽기’ 위주 방법론에서 탈피해 좀 더 과감한 ‘꼼꼼히 읽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자. 인터넷 관련 연구에서 ‘꼼꼼히 읽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쉽지 않다. 정제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인문학과 달리 사회과학, 특히 인터넷 분야 연구에선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는 텍스트와 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때문에 연구자들은 텍스트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진 모두 민속지학 같은 좀 더 주관성 강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³

물론 좀 더 직접적이고 주관적으로 인터넷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선 최근 들어 조금씩 관심이 늘고 있는 디지털 민속지학방법론과 자기민속지학을 제안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디지털민속지학은 인터넷처럼 시시각각 변화 발전하는 연구 대상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김예란(2012, 469 쪽)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디지털 민속지학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단지 사람들이 행한 행위의 ‘흔적’으로서 남겨진 ‘언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인간 ‘행위’ 그 자체가 수행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인터넷연구가 텍스트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취함으로써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들을 폭넓게 관찰하는 장점을 희생한 반면, 디지털 민속지학은 다양한 양식의 기호들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실시간 상호작용 요소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김예란, 2012, 468 쪽).

13.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세은(2013)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세은은 구술사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사 연구 같은 학계에서 비교적 외면되고 있는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선 연구자 중심의 크고 작은 논의의 장이 수시로 열릴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학술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학술지가 이러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형화되어 있는 논문 쓰기 방식이 좀더 유연해져야 하며 다루는 주제 역시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김예란의 주장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학계가 인터넷이란 비교적 새로운 연구 대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선,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론적, 학술적으로 설명한다는 학계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인터넷이란 비정형의 물체’와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현장 종사자들이 웹 2.0 이나 UCC 같은 용어들을 적당히 재활용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에 읽은 것 중 ‘꼼꼼히 읽기’의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할만한 논문 두 편을 소개한다. 한 편은 전문 연구자 한 명과 디지털 민속지학을 실천한 또 다른 연구자 한 명이 공동 작업을 한 논문이다. 다른 논문은 아예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자기민속지학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앞의 논문이 전통적인 논문 서술 관행에 좀 더 가까운 반면 뒤의 논문은 파격적일 정도로 주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난 이런 논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이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현업 종사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학계의 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관적인 글들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⁵

1) 디지털 민속지학: 교수 1 인+ 학생 1 인 공동 작업 모델

디지털 민속지학 방법이 인터넷 연구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김해원-박동숙(2013)의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이 연구는 디지털 민속지학과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소셜 네트워크 거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한 논문이다.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과 지도 교수의 합작품인 이 논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연구자의 역할 분담이었다. 박사 과정 학생인 연구자 1 은 SNS 거주민으로 직접 참여하고, 지도교수인 연구자 2 는 비거주민으로 한 발 물러서 있는 대신 연구

14. 2005 년을 전후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웹 2.0 과 UCC 란 용어가 엄청나게 유행했다. 이용자 참여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한 그 용어들이 널리 활용되자 학계에서도 이 용어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웹 2.0 과 UCC 란 제목을 단 논문들도 꽤 많이 나왔다. 하지만 난 인터넷업체들이 마케팅 용어로 웹 2.0 을 사용하는 건 충분히 그럴듯하지만 학계가 무비판적으로 그 용어를 수용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하이퍼텍스트에 대해 조금이라도 탐구했다면 웹 2.0 이란 게 인터넷의 기본 성격을 교묘하게 짜깁기 한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은 UCC 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용자들이 생산자가 되는 언론에 대한 연구라면 충분히 UCC 란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의 출발점 자체가 원래 UCC 였다. 카페나 블로그, 댓글 같은 것들이 UCC 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난 학계가 현장의 이런 교묘한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는 것은 결국 ‘꼼꼼한 텍스트 읽기’를 게을리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5.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업 종사자들이 주로 진학하는 언론대학원들부터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언론대학원에 진학하는 현업 종사자 상당수는 계속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에게 전통적인 논문 작성법을 애써 가르치기 보다는, 현업 종사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학계에 도움이 될만한 논문을 쓸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을 바꾸는 건 어떨까? 오랜 기간 자신이 몸 담은 분야라면, 데이터 수집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을 쓰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서술하면서 보편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지도해주는 것도 학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관찰 결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거주민들이 진입, 발전, 도취, 조정, 성숙기 등 5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SNS 거주민들의 경험을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루어지는 공유된 문화”로 바라보면서 연구 대상들을 지배하는 기제들을 입체적으로 진단해 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테면 연구자들이 페이스북 중사용자들을 ‘SNS 거주민’으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 이들의 이용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SNS 사용자들은 이 공간을 마을, 광장, 얼숲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글을 읽고, 댓글을 남기고, 댓글에서 서로 만나는 일련의 활동들을 마실다닌다”(김해원-박동숙, 2013)고 표현한다.

이들은 또 한 때 SNS에 열광하던 조정기를 거친 뒤 중단이나 탈퇴를 하는 대신 성숙기에 접어든다고 진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나 역시 페이스북을 꽤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구자들의 이런 진단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었다.

도취기에 축제의 극치감을 경험해 보고, 현실의 삶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관련성을 갖게 된 거주민에게 SNS 탈퇴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래서 도취기의 혼돈과 갈등을 조정기를 통해 극복하면서, 현실의 삶과 SNS 거주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바로 이러한 타협의 산물이 성숙기의 규범과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관계맺기와 교류의 규범과 콘텐츠 전략을 만들고 실천하였다. 또한 ‘SNS 타이밍’에 얽매이거나, ‘즉각적 반응’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미디어 길들이기’를 실천하였다(김해원-박동숙, 2013).

같은 연구를 설문 조사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더라면 ‘SNS 거주민’이란 개념이나, 한 때 페이스북에 열광했던 이용자들이 어떤 이유로 조정기를 거치는지, 또 성숙기에 들어선 뒤에는 콘텐츠 운영 전략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텍스트 속’으로 뛰어들어 ‘꼼꼼히 읽기’에 성공한 사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2) 자기 민속지학: 주관적 형식에 담긴 객관적 내용

주형일(2007)의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아예 연구자 자신의 경험이 연구 대상이다. 자신이 왜 스파이더맨을 좋아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문화 현상을 진단하겠다는 것이 연구 목표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자기민속지학이다.

자기민속지학이 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주형일(2007)은 “‘나’가 분석주체이며 분석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분리된 어떤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민속지학과 차이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1 인칭으로 자신의 경험, 감정, 에피소드 등을 기술하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 사회구조, 문화와 관계를 맺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1970년대 말 지방의 낙후된 작은 읍내에서 한창 개발 중에 있던 서울의 강남으로, 부모님과 살던 집에서 친척 집에서의 더부살이로 옮겨가면서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은 경험과 한국은 물론 외국 미디어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도시 중산층의 생활이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어줬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물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연구 결과의 명징함과 일반화를 요구하는” 사회과학 입장에서 본다면 약점이 많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는 자기민속지학적 방법론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기민속지학 방법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방법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형일은 주장했다. 특히 그가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깊이 동감한다.

자기민속지학이 언론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용된다면 흥미로운 결과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나 PD가 신문사, 방송국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기민속지학을 통해 다룬다거나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학회 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다룬다거나 학생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댓글을 단 경험을 기술하며 인터넷 문화를 다룬다고 생각해 보라. 연구자가 진정성을 갖고서 자기성찰을 할 경우 훌륭한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주형일, 2007).

3) 인터넷 연구의 한 단계 도약을 꿈꾸며

텍스트를 좀 더 꼼꼼하게 읽는 방법이 ‘디지털 민속지학’이나 ‘자기민속지학’ 같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텍스트와 직접 대면할 수 있다. 또 디지털 민속지학이나 자기민속지학 방법을 쓰더라도 다른 양적, 질적 방법론을 병행할 경우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와 좀 더 직접적으로 대결하겠다는 자세다. 방법론은 그 이후에 결정해도 된다. 결국 연구자의 세계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택하면 될 터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논문의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나는 논문을 시작하면서 첫 화두로 김훈의 고백을 인용했다. 6하 원칙에 얽매인 기사 형식이 현실의 복잡한 면을 지나치게 단순화해버리면서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고백이었다. 현장에서 매일 매일 기사를 쓰고, 또 남들이 쓴 기사를 데스크킹하면서 김훈의 고백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현재 한국 언론의 많은 문제 중 상당 부분은 ‘맥락(context)’을 읽기보다는 ‘개별 사안(text)’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보도에서 연유된 것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장과 학계의 경계선에서 이 쪽 저 쪽을 기웃거리면서 난 학계 쪽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통계와 개별 데이터에 지나치게 집착함에 따라 정작 보다 큰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이 논문을 쓰게 됐다.

물론 우리 언론/커뮤니케이션학계는 그 동안 학문적인 성취와 깊이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짧은 역사에 비해선 축적된 연구 결과가 적지 않은 편이다. 묵묵히 텍스트를 읽고, 또 해석해 온 연구자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젠 질적인 도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아니 진작부터 그런 고민을 해야만 했다.

나는 그 단초로 일단 연구자가 텍스트와 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선 멀찍이 떨어져서 텍스트를 읽던 관행(원거리 읽기)에서 탈피해 좀 더 텍스트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영문학계의 오랜 연구 방법론인 ‘꼼꼼히 읽기’를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출발부터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의 뼈대를 이룬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론’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이 논문을 정교하게 보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원거리 읽기란 방법론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었지만, 정작 내가 주로 한 얘기는 그 방법론이 비판하던 ‘꼼꼼히 읽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부분 역시 논리적으로 다소 비약이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시작할 때 가졌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논문을 쓰면서 그 문제의식은 더 커졌다. 서투고 성글긴 하지만, 경계인으로서 학계에 그런 화두를 하나쯤 던지고 싶었다.

난 앞에서 프랑코 모레티가 했던 말을 인용했다. “더 많이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악마와 계약하는 심정으로 읽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난 이 말을 살짝 비틀어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악마와 계약하는 심정으로 주관적으로 읽고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텍스트와 거리를 유지한 채 ‘원거리 읽기’에만 몰두하는 뉴미디어 연구 지형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2013). 어떤 학문과 학자를 키울 것인가. 『한겨레신문』 2013. 10. 14.
- 강미은(2001). 『인터넷 저널리즘과 여론』. 서울: 나남출판.
- 김세은(2013). 언론학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구술사에 대하여: 현장에서 길을 잃은 한 연구자의 질문과 출구 찾기. 『커뮤니케이션이론』 9 권 3 호.
- 김영민(1996).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민음사.
- 김영민(2012). 원거리 읽기와 꼼꼼히 읽기로 보는 세계문학. 『동국대학원신문』 2012. 6. 11 일자.
- 김예란(2012). 디지털 민속지학. 한국언론학회(편집). 『융합과 통섭: 다중매체 환경에서의 언론학 연구방법』. 나남, 463~480.
- 김윤식(2013). 『문학사의 라이벌 의식』. 서울: 그린비.
- 김익현(2008). 『뉴스 공론장으로서 블로그의 가능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신방과 박사학위 논문.
- 김해원-박동숙(2013). 소셜 네트워크 거주민으로 살아가기: SNS 사용자경험에 관한 통시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 권 2 호.
- 남궁 협(2013). 인문학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모색: ‘부정의 학’으로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이론』 9 권 2 호.
- 남재일(2013). 새로운 담론 환경 속 문화부 기자의 전문화 절실. 『신문과 방송』 10 월호.
- 박진우(2013).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가? ‘언론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인문학’의 현실과 과제. 『커뮤니케이션이론』 9 권 3 호.
- 신태범-권상희(2013). 국내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분석 대상과 주제, 이론 및 방법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9 권 2 호.
- 양승목(2009). 언론학 연구 50 년:성찰과 전망. 한국언론학회 50 년사 편찬위원회(편집). 『한국 언론학회 50 년사: 1959-2009』. 한국언론학회, 1019~1062.
- 우형진-박지연(2011). 국내 인터넷 연구의 발전적 모색 2- 2005~2010 년까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커뮤니케이션이론』 7 권 1 호.
- 유희석(2005). 세계문학에 대한 단상-프랑코 모레티의 발상을 중심으로. 『안과밖』 18 호.
- 이상길(2010). 외국 이론 읽기/쓰기의 탈식민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부르디외로부터의 성찰. 『커뮤니케이션이론』.
- 주형일(2007).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자기민속지학 방법론의 모색. 『언론과 사회』 15 권 3 호.
- 주형일(2011). 문화연구와 글쓰기- 하나의 모색. 『언론과 사회』 19 권 4 호.
- Aarseth, E. J. (1997). *Cybertext: Perspectives on ergodic literatur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류현주(2007). 『사이버텍스트』. 서울: 글누림.
- Babbie, E. (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9th ed)*. Thomson Learning; 고성호 외(2002).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그린.
- Berry, M. D. (ed). (2012). *Understanding digital humanities*. Palgrave Macmillan.

- Bolter, J. D. (2001). *Writing space: Computers, hypertexts, and the remediation of pri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김익현(2010). 『글쓰기의 공간: 컴퓨터와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인쇄의 재매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Culler, J. (2010). The closeness of close reading. *ADE Bulletin* (149), p.p. 20-25.
- Christie, M. (2010). Distant and close-reading in the Anthropocene. *Bildungs& Food*. <http://eurhythmaniac.wordpress.com/2010/02/03/distant-and-close-reading-in-the-anthropocene/>
- Hayles, N. K. (2012). *How we think: Digital media and contemporary technogene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kers, M. (2013). *Macroanalysis, digital methods and literary history*.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 Kestemont, M. (2013). A distant reading of distant past: computational text analysis and medieval literature. <http://www.e-humanities.net/assets/seminar/2013/drafts/2013-eHumSem-NL-Kestemont-Mike-ADistantReadingOfADistantPast.pdf>
- Kirschenbaum, M. G. (2009). The remaking of reading: Data mining and the digital humanities. <http://www.cs.umbc.edu/hillol/NGDM07/abstracts/talks/MKirschenbaum.pdf>.
- Landow, G. (2000). *Hypertext 3.0: Critical theory and new media in an era of globaliz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김익현(2019). 『하이퍼텍스트 3.0: 지구화 시대의 비평이론과 뉴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Moretti, F. (2013). *Distant Reading*, New York: Verso.
- Mueller, M. (2007). “Notes towards a user manual of MONK.” <https://apps.lis.uiuc.edu/wiki/display/MONK/Notes+towards+a+user+manual+of+Monk>
- Sculz, K. (2011). What is distant reading. *New York Times*. 2011. 6. 24.